

사랑의 손으로
폭력을,
훈육의 입으로
분노를,
멈추세요!

사랑의 손으로
폭력을,
훈육의 입으로
분노를,
멈추세요!

목차

CHAPTER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1. 아동학대 발견하기 9
2. 아동권리존중 인식하기 15
3.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하기 17
4. 아동학대 빈번 발생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이해하기 18

CHAPTER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양육자) 양육 지침

1. 아동학대와 아동 훈육 비교하기 23
2. 양육 스트레스 조절하기 27
3. 아동을 존중하는 양육 태도 기르기 31
4. 사례 중심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하기 35

CHAPTER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

- 1. 보육교사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보육교사의 바람 알아보기 43
- 2.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방향 수정하기 51
- 3.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제 경험하기 60
- 4. 사례 중심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하기 72

CHAPTER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의 어린이집 관리

- 1. 아동학대와 아동 훈육의 기준 제시하기 81
- 2. 원장의 긍정적 영향력 발휘하기 92
- 3. 아동학대 관련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 파악 및 대처하기 103
- 4. 보육교직원의 반성적 사고 유도하기 107

참고문헌 109

CHAPTER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CHAPTER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체벌 등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 2014.1.28.)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징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 학대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음,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 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 학대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별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 학대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 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 삽입, 구강성교, 항문 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하는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 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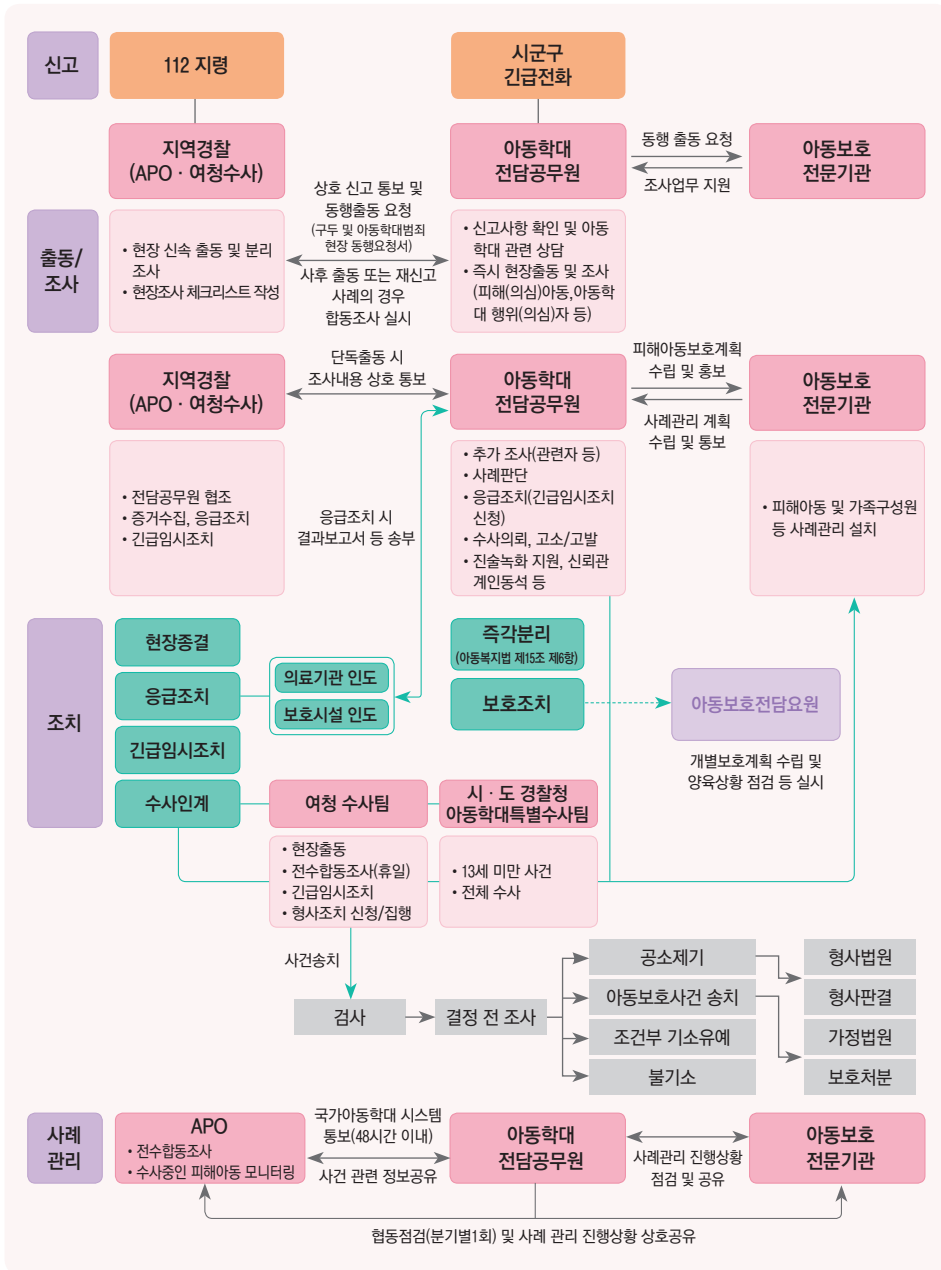
아동학대 조치 단계

아동에게 상흔이 보이거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학대 의심 사례라고 판단되면 아동학대 신고 통합 시스템 112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연계하여 현장 출동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상황에 따라 피해 아동은 응급 및 즉각 분리 등 보호 조치를 받게 되고 학대 행위자는 접근 금지 명령 등 임시 조치를 결정받게 된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법원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판결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 절차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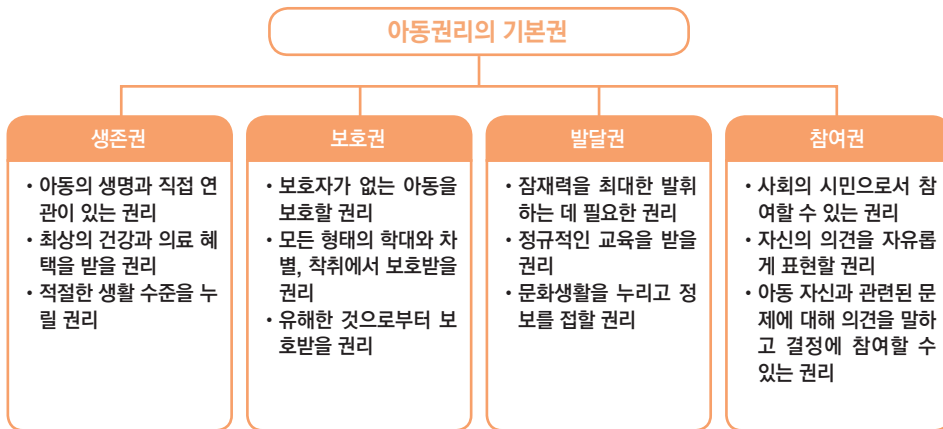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 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성 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을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 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p>‘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p> <p>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 전문 기관

아동권리존중 인식하기

인간은 누구든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어린 영유아들도 자신의 권리를 누릴 주체이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동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영유아의 생존과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따라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인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고려한 정당한 존중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아동권리와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975년 「어린이헌장」 제9조에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학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7년에는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통해 학대 가해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성영화 · 이숙자, 2018).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를 받는 영유아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2.1%로 가장 많으며, 아동학대 전체 사례 중 84.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20). 더욱이 사회적 낙인 우려 등으로 숨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는 보고된 것보다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유아 시기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성장이 미완료된 시기로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따라서 일회적인 학대가 가해지더라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방해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일

반적인 사회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크고 넓다. 아동학대 경험은 일시적 영향으로 그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신체적 상해나 장애, 사회적 관계 및 적응의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며, 부모가 되었을 때 아동학대가 되물림될 비율이 높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된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해 하는 영유아의 모습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하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아동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의 인권 감수성(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감수성(민감성)은 “가정 및 보육 현장에서 부모(양육자) 및 보육교직원이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여 영유아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알고 그 책임이 부모(양육자)와 보육교직원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교육과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정의적이고 행동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권 감수성(민감성)은 훈련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

인권감수성(민감성) 훈련 정의

부모(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은 타인과의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마음의 흐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란 나와 타인과의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마음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집단 조직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익히는 훈련으로 레빈(Lewin)과 로저스(Rogers)의 인간 중심 치료에서 시작되었다(유아교육용어사전).

인권감수성(민감성) 훈련 과정

인권 감수성(민감성)은 상황 지각→결과 지각→책임 지각의 과정으로 감수성(민감성)을 높이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권귀염, 2017).



- **상황 지각(인지)** :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으로 인권의 문제가 개재된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지각하고 해석하여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 **결과 지각(정서)** :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를 미칠지 지각하는 능력(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 **책임 지각(행동)** : 개인의 책임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 인권과 관련된 행동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아동학대 빈번 발생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이해하기

부모(양육자) 또는 보육교직원의 지도와 아동의 요구도가 서로 다를 때 부모(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은 1단계로 경청하고 공감하기를 나타내야 한다. 아동이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표정, 분위기, 행위 등) 특성을 관찰하고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여 공감해 준다. 아동이 스스로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를 격려해 준다.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이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 행동이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단계로 대안 및 한계를 제시해 준다. 부모(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은 아동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제시하고 아동이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 보거나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이 제시한 여러 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아동이 지속적으로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의 개입을 거부하면 마지막 단계로 멈추기를 한다. 멈추기는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의 반복되는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며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은 아동에 대한 상호 작용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아동이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 수준〉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의 지도와 아동의 개별적 요구가 다를 때		〈지나친 수준〉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은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아동은 지도를 거부할 때
경청하고 공감하기	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	멈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특성을 관찰하여 아동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아동의 감정과 연결하여 표현해 준다. •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표현한 감정과 행위를 설명해 주어 다시 한 번 아동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도록 하거나, 2~3개의 대안을 제시하여 아동이 선택하도록 한다. • 아동의 선택을 격려한다. • 아동에게 행동의 한계를 제시하여 허용 범위를 이해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은 숨을 고르며 진행하던 지도를 모두 멈춘다. • 아동의 곁에 머물면서 아동이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 아동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

참고 : 보건복지부(2021).

놀이터에서 놀이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부모(양육자)에게 가지 않겠다고 울고 소리 지르는 아동의 부모(양육자)가 위의 행동 요령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p>〈일상 수준〉</p> <p>놀이터에서 저녁 먹으러 집에 가야 한다는 부모(양육자)</p> <p>vs</p> <p>울고 소리 지르면서 놀이터에서 더 놀이하고 싶다는 아동</p>		<p>〈지나친 수준〉</p> <p>계속 집에 가기를 요구하는 부모(양육자)</p> <p>vs</p> <p>바닥을 툭툭하며 놀이터에서 더 놀겠다는 아동</p>
경청하고 공감하기	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	멈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에서 더 놀이하고 싶어 속상하구나.” • “놀이터에 더 있고 싶고 집에 가기 싫어 눈물이 나는구나.” • “그래, 네가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이제 컴컴해져서 집에 가서 씻고 저녁 먹고 자야하는 시간이야. 어떻게 하지?” • “그럼, 5분 동안만 더 놀이할까? 5분은 아주 짧은 시간이야. 아니면 지금 집에 가고 저녁 먹은 후 집에서 놀이하는 건 어떨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게 숨을 쉰다. • “너무 속상하구나. 엄마가 네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 있을게.”

부모(양육자), 보육교직원은 아동의 감정을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공감과 대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멈추기를 실시하여 아동에게 부정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림 1-2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이하는 영유아의 모습

CHAPTER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양육자)양육 지침





CHAPTER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양육자)양육 지침

부모(양육자)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이다. 부모(양육자)의 양육 행동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떤 부모(양육자)도 학대를 긍정적이라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이, 교육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가 자행되기도 한다. 부모(양육자)에게 학대받은 경험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는다. 부모(양육자)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 지침을 실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와 아동 훈육 비교하기

과거 자녀의 양육은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여 자율성을 강조해 왔으며, 자녀 훈육을 위한 체벌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으나, 최근 들어 아동학대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구분하게 되었다. 부모(양육자)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엄격한 훈육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특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자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라는 의미로 합리화된 체벌은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영유아의 신체, 정서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학대임을 기억해야 한다.

훈육의 사전적 의미는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르는 것’으로 자녀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훈육은 필요하다. 학대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훈육과 학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절대 훈육을 한다는 핑계로 학대가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는 평생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주며 학대받은 경험이 일생 동안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원만한 대

인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며,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낳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비행과 학교 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양육자)가 되어 또다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자녀 양육 시 훈육 행동과 아동학대를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훈육과 체벌의 차이

● 훈육과 체벌은 전혀 다르다

‘훈육’은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임

- 훈육 :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주목적에 달성하는 교육
- 체벌 : 일정한 교육을 목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
(교육부 · 보건복지부, 2016)

● 자녀의 입장에서 체벌은 피해야 할 고통으로만 인식된다


- 영유아의 입장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임. 생애 초기 학대 경험은 영유아 발달에 심각한 손상뿐 아니라 학교 폭력, 가정 폭력의 문제로 이어지게 됨.

사례 1

- 화가 나면 장난감을 던지는 자녀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손바닥을 3대 때렸다.



그림 2-1  체벌하는 부모(양육자)


사례 1의 경우 부모(양육자) 입장에서 자녀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랑의 매를 때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신체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영유아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너무 무섭다’, ‘왜 그렇게 하지? 피하고 싶다’라고 느낄 것이다. 부모(양육자)들이 자녀 훈육을 위해 무심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체벌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체벌은 일시적으로 부모(양육자)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반항심과 공포심을 유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낮추고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사례 2

- 울면서 소리를 질러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라고 깜깜한 방에 혼자 두었다.



그림 2-2  깜깜한 방에 있는 아동

사례 2의 부모(양육자)에게 묻는다면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서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생각할 시간을 준 것이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깜깜한 방에 혼자 남겨진 상황이 공포로 느껴질 수 있고, 부모(양육자)에게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남겨진 영유아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에 제시한 사례 외에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자녀에게 “또 그랬어? 너는 왜 항상 그러니?”라고 하거나, “○○야, 또 그럴 거니? 그러면 엄마 딸(아들) 아니야” 등과 같이 위협하거나 빗대어 야단치기 등의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정서 확대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양육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아동학대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가해지는 상황

- 말 안 듣는 경우 꿀밤(영덩이 등) 때리는 행동
- 귀엽다고 볼 잡아당기는 행동
- 빨리 오라고 팔 잡아당기는 행동
- 손 들고 벌 세우는 행동
- 화가 난다고 주변의 물건 던지는 행동
- 영유아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행동
- 영유아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놀리는 행동
- 성인 영상물을 영유아가 접근 가능한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행동
- 세탁하지 않은 옷(계절에 맞지 않은 옷) 입히는 행동
- 영유아만 두고 외출하는 행동
- 필요한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는 행동
- 아픈 영유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동

양육 스트레스 조절하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지만, 때로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부모(양육자)도 한 인간이므로 다양한 기분 상태를 가지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Carter & Welch, 1981). 형제끼리 싸울 경우, 일반적으로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지원

하지만, 어떤 날은 무작정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게 되기도 한다. 또 영유아가 컵에 가득 담긴 물을 쏟았을 때, 놀란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며 함께 정리하는 부모도 있지만, 이를 아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고 다그치는 부모(양육자)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이 과정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도 서로 다르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양육자)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부모(양육자)가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인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양육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권연희, 2020). 부모(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책임과 부담을 동반하며, 경제적 부담, 신체적 피로감, 개인 여가 생활 제한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동반하기도 한다. 자녀 양육은 부모(양육자)에게 행복감, 효능감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부모(양육자)의 스트레스는 우울감, 부부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부정적인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학대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고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학대에 노출되는 빈도 역시 높아져,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 양육자의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김정은·최진령, 2018). 이처럼 부모(양육자)가 자녀 양육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곧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동학대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부모 요인, 자녀 요인, 기타 지원 요인 등 다양하다. 먼저 부모(양육자) 요인으로서는 부모(양육자)의 양육관이나 아동관, 양육 지식 및 기술 정도, 부모(양육자)의 개인적 변인 요인 등이 있다.



부모(양육자) 요인

-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 부모(양육자)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아동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
- 영유아에게 지나친 기대
-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 질환
- 미성숙 또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
- 알코올 중독 · 약물 중독
- 정서적 욕구 불만 또는 사회적 고립
- 부모(양육자)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 조절의 무능력

다음으로 자녀 요인은 자녀의 연령, 성별, 기질 등 개인적인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 요인

- 아동의 특성, 양육 태도 등과 관련된 지식 부족
- 아동과 관련된 지식을 실제 가정 상황에 연결하는 실행 능력의 부족
- 자녀에 대한 상호 작용 관련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갖지 않는 것
-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의 미숙함
-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양육자 자신의 행동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
- 양육보다는 관리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
- 아동의 입장보다 양육자 자신의 힘듦이 우선시되는 것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시 지원 체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부모(양육자)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다를 수 있다.



가정 및 사회 요인

- 가족 관계 문제
- 신체 체벌에 허용적인 문화
-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 체계 결여
- 관련 교육 이수 경험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적응 수준은 달라진다. 스트레스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유발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우혜영, 2013).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양육 스트레스는 매일 반복적인 경험과 누적성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체를 할 수 없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양육자)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이러한 조절 전략을 잘 사용한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부모(양육자)들이 영유아 발달 및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이해하고 있을 때 양육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

자)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참여했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양육자)들에 비해 가정 내 자녀의 권리 보장하기 위한 실천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정현, 2020; 이해진 · 장혜진, 2017). 따라서 부모(양육자) 자신과 자녀가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을 존중하는 양육 태도 기르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 태도가 긍정적이며(이은주 · 정계숙, 2012),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Rogers, 2009). 아동학대를 피하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정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모(양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체벌을 화를 분출하듯 폭발시키지 말고,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이야기해야 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꾸짖지 말고,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는 영유아를 동등하고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영유아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기반을 둔 긍정적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서울시육아종합센터, 2015). 자녀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손끝 움직임, 표정 하나에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있는 관찰을 하며 적절한 반응과 격려를 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양육자) 간의 상호 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객관적 중재자로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영유아가 타인의 입장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적절히 개입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가정 내 일상생활은 부모(양육자)의 가치관이나 양육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유아는 스스로의 선택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듯 영유아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부모나 양육자라면 영유아들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반면, 자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부모, 자녀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양육자라면 아이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게 될 것이다.

영유아들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임을 인정하고 영유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감정과 행위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수용, 인정하는 격려하기

- 수용 : 행동의 긍정적 측면 또는 감정을 읽어 낸 그대로 말해 주는 것
 “○○가 블록을 쌓고 있구나.”
 “친구가 놀잇감을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 인정 : 행동한 그 결과까지 말해 주는 것
 “○○가 블록을 열심히 쌓는 걸 보니 멋진 건물이 지어질 거 같은데.”
 “○○가 놀잇감을 양보해 줘서 친구가 고마워하겠다.”



경청, 존중하는 대화 나누기

- 잘못된 행동을 꾸지람하기 전에 아동의 이야기 들어보기
(위험한 경우 안전한 환경으로 정비하기, 필요한 경우 아이 마음 먼저 돌아보기)
“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구나.”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니?”
- 감정을 수용하며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로 말해 주기
“저 책이 필요했구나(수용). 책상 위에 올라가면(원인) 떨어져서 다치게 돼(결과).”
- 아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아빠는 ○○가 다칠까 봐 많이 걱정 돼.”
-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격려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양육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들은 어른과 다르지만, 자기 나름의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인의 관점에서는 틀린 답변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여 경청하고 정당화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윤매자, 2010).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 작용은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스스로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격려하고, 발달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다.



발달을 지원하는 상호 작용하기

- 모델 보이기 : 병행 놀이를 하며 놀이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
“할머니도 초록색 집을 만들어 봐야지.”
- 직접적 제안 : 직접적으로 놀이 안내, 유지 및 확장을 돕는 것
“여기 모래밭에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찾아 볼까?”
- 개방적 · 확산적 질문 : 영유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
“무엇을 할까?”, “왜 그럴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다른 생각 있니?” 등

자녀 양육 중 부모(양육자)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때 부모(양육자)가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부모(양육자)가 불편함을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나-전달법’이다. ‘나-전달법’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먼저 현재 상황과 부모(양육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한 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때 영유아에게 ‘너 때문에’, ‘너는 왜’ 등의 비난은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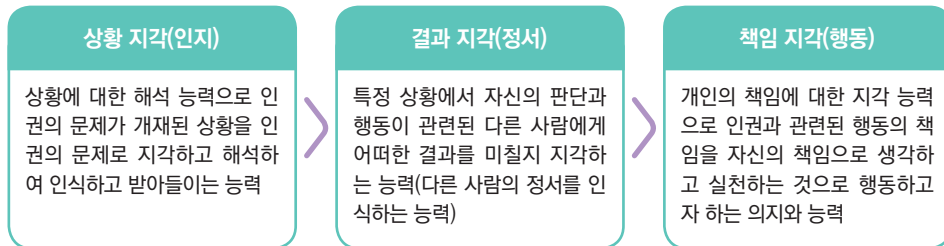
나-전달법 사용하기

- 부모(양육자)의 감정과 생각을 비난하지 않고 표현하기
(행동 서술→느낌 서술→결과 서술)
“네가 동생이랑 싸우니 엄마 마음이 아프구나. 왜냐하면 엄마는 둘이 잘 놀 것이라 생각했거든.”

사례 중심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하기

가정은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 실천의 현장’이다. 부모(양육자)가 인권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가가 곧 아동의 인권이다. 따라서 부모(양육자)는 아동과의 관계에서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자극이나 상황 속에서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가정 환경을 구성하여 아동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권 감수성은 상황 지각→결과 지각→책임 지각의 과정으로 감수성을 높이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권귀염, 2017).

가정에서 생활 중에 발생하는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부모(양육자)의 행동이나 언어들은 아동의 참여를 배제한 부모(양육자)의 결정이 우선되어 버리는 경우로 인해 빈번하게 드러난다. 아동의 선택의 권리,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협의’이다(김은옥, 2018).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이 감지되면 문제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여, 그 상황을 아동과 부모(양육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해결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율적 도덕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아동들의 진정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사례 3

- 벌써 10시가 넘어가는 시간, “조금만 더 놀게”라며 계속 놀이하려는 아동에게 “그만 치워, 잘 시간이야”라고 이야기하자 더 놀이하겠다고 울며 떼를 쓴다.



그림 2-3  떼쓰는 아동

1. 상황 지각

- ‘왜 울면서 떼를 쓸까?’ 아동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 본다.

2. 결과 지각

-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결과를 예측해 본다.
(계속 놀이하게 하는 것의 문제, 놀이를 정리하고 자도록 하는 것의 문제 등)

3. 책임 지각

-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려한 다음 아동과 함께 협의해서 방해되지 않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협의한 결과가 부모(양육자)의 생각과 다소 다를지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방안을 찾아 개선해 가도록 한다.

부모(양육자)의 상호 작용

- “지금 하고 있는 놀이를 더 하고 싶은 거구나.” 또는 “하던 것을 끝내지 못 했구나!”
- “지금 잠을 자지 않으면 내일 늦게 일어나게 되고, 어린이집(또는 학교)에 늦게 가서 친구들과 많이 놀 수 없을 수도 있어.”
- (아동-부모(양육자) 간 협의) “어떻게 하고 싶니?”
- (아동이 어려워하면 부모(양육자)가 제안) “아빠(엄마) 생각에는 이대로 두었다가 하고 싶을 때 다시 놀이할 수도 있고, 내일 어린이집(또는 학교) 다녀온 후에 할 수도 있겠는데 ○○는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자지 않고 계속 놀이하려고 떼쓰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양육자)가 왜 그럴까 상황 발생의 원인과 이에 따라 발생할 결과를 생각해 보고, 자녀와 이야기해서 함께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사례 4

- 물이 가득 들어 있는 컵을 들고 뛰어다가다 바닥에 물을 모두 쏟았다.



그림 2-4 물컵을 들고 뛰다가 물을 쏟은 아동

- 부모(양육자)가 보기에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 이해할 수 없는 영유아의 행동이라도 평가하고 질책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아동에게 설명하기
 - 아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아동 입장에서 이해와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지금의 사례는 물을 바닥에 쏟아버린 상황을 보고 부모(양육자)가 잘못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질책하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빠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면 자칫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인인 부모(양육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문제로 인해 발생될 결과를 예측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양육자)와 자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상호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 가정 내 지켜야 할 규칙은 아동과 함께 이야기하여 정하고 있나요?
- 놀이나 활동을 중단해야 할 때는 아동에게 미리 알려 주거나 시간을 함께 정하고 있나요?
-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꾸지람하기 전에 설명이나 이유를 물어보고 있나요?
- 아동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 아동의 성별 및 출생 순위, 발달 특성에 따라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동 인권 존중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양육자)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이다. 처음에는 부모(양육자)나 자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인권 감수성 훈련을 통해 자녀의 자율적 도덕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양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부모(양육자)와 자녀 모두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동학대 처벌 사례

● 12세, 14세 아동들이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친부

- 아동복지법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벌법상 : 유기, 영아 유기, 학대, 아동 학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
- 판결 : 법원은 친부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 머물다 온 딸에게 화가 나 욕설 및 폭행한 친부

- 아동복지법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벌법상 : 상해, 폭행, 특수 폭행, 폭행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 특히 아동학대 치사 시, 무기 징역 및 5년 이상 징역
- 판결 : 법원은 친부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1년 간 11세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 및 추행한 50대 친부

- 아동복지법상 : 아동을 매매,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처벌법상 : 강간(미수), 유사 강간(미수), 강제 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
- 판결 : 법원은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과 징역 15년을 선고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재편집)

CHAPTER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





CHAPTER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

2015년 초 인천 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된 이후 아동학대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또한 급증했으며 영유아를 기관에 보내고 있는 부모(양육자)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다. 이는 곧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긴장과 시련을 안겨 주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보육과는 별개로 부모(양육자)들의 무분별한 의심과 무례한 개입이 보육교사들의 보육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아동학대’라는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 보육에 전념하여야 할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아동학대’인지의 정의가 모호해져 버리면서 21세기 추구하는 인재상과는 거리가 먼, 영유아에 대한 과잉 통제와 보호만이 존재하는 보육 현장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불편한 인식과 보육 현장에 대한 바람에 대해 정리해 보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방향성과 실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보육교사의 바람 알아보기

보육교사에 대한 불편한 시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해 본다.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잦은 사회적 노출

아동학대라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간혹 보육교사 관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매스컴을 통해 재생산되고 확대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자처럼 보는 부정적 시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자존감의 위축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제가 큰 죄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은 모습도 보여 주면 좋겠어요. 잘하는 보육 교사들이 정말 많은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달랄 수도 없고...(고영숙 · 이대균, 2018)



●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부모(양육자)의 오해와 갈등

부모(양육자)-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최상의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부모(양육자)의 오해와 추측에서 오는 아동학대자로의 의심을 받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되고 이로 인한 부모(양육자)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으로 다수의 보육교사들이 보육 현장을 떠나거나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잠이 들었기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시간은 CCTV 확인 결과 2분 30초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아직 잠이 덜 들었던 두 유아가 누워서 티격태격하다 상대 또래 얼굴에 상처가 생겼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방치한 학대 사건이라면서 어린이집에는 확인도 하지 않고 지자체에 민원부터 넣었고 CCTV로 확인한 후에도 “우리 ○○가 그러는데 선생님 없었는데요...”라며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런 대우를 받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2019.4. 수업 장학에서>



이처럼 부모(양육자)는 성인의 의도적인 질문에 의한 영유아들의 맥락 없는 대답은 믿지만 보육교사의 해명 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3-1 🍷 일련의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보육교사

●● 보육교사의 훈육과 아동학대에 대한 불확신

최근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아동학대 신고 사례의 경우 ‘훈육 및 교육 행동’과 ‘아동학대 행동’ 간 경계가 개개인의 이념에 따라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아동학대라고 판단할 명확한 사례 판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박진아 · 이경숙, 2015; 고영숙 · 이대균, 2018, 재인용). 영유아기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과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지만 보육교사들은 교육 이전에 몇몇 부모(양육자)들의 맹목적인 요구와 분별없는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훈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같은 반 아이 중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아이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거나 그런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겠다 싶어 교사실에 데려가서 양팔을 잡고 애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선생님이 팔을 때렸다고 했고 어머니는 보육교사의 말을 듣고 믿어 주었으나 퇴근한 아버지와 조부모는 “왜 CCTV가 없는 교사실에서 훈육을 했냐며 그걸 어떻게 믿냐”며 신고를 했고 경찰 등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갔어요. <2018.06. 면담에서>

본 사례의 보육교사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퇴직을 했다. 또래로부터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 주고자 성인의 공간에서 훈육을 했으나 CCTV가 없는 곳에 데려간 것은 보육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는 의심을 한 것이라 했다. 보육교사들은 유아의 경우 자기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연령인 것을 알고 있지만 부모(양육자)에 의한 위와 같은 오해가 싫어서 훈육을 시도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의 부적응 행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도 한다.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육교사로서 부모(양육자)들의 의심과 불신 앞에서 보육교사들의 신념과 가치관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시의 기능이 두드러진 CCTV로 인한 행동 제약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일과를 운영하면서 CCTV에 비춰질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고 순간 주춤거리게 된다고 한다.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고 참여하며 반응해 주는 역할, 훈육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도 자신의 모습이 CCTV에 비춰지는 상황을 의식하여 놀이 참여자로서 보육교사의 역할 수행에 위축되거나 영유아와 함께 즐기지 못하고 멈추어 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전 항상 지금도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손을 뒤로(뒤로 손을 감추는 행동을 보임)하고 이왕이면 CCTV 앞에 잘 보이는 곳에서 하고, 일단 아이한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 증거물? 이런 게 남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의식적으로 손을 항상 뒤로 하고 가능하면 오픈된 공간에서...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의심의 소지가 있으니까...그러려고 해요(고영숙 외, 2018).



“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도를 하지 않는지” 물어보면 “CCTV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보는냐에 따라 오해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두렵다”고 한다. 훈육을 할 때는 “의심받을 행동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가급적 신체 접촉은 피하되, CCTV에서 정확하게 잘 보이는 공간을 찾아 훈육하려고 한다”고도 한다. 영유아 시기에 한참 스킨십이 필요하고 놀이에 심취해서 놀아야 하는데 바람직한 놀이 지원도 해주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 의해 자신의 상호 작용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신의 상호 작용을 평가해 보았을 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동학대로 보일 법한 상호 작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서 나타나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영숙 외, 2018).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보육교사로서의 바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나 의심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보육교사와 무관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긴 하지만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민감성 등 다양한 전략들로

헤쳐 나가며 부모(양육자)와의 신뢰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보육교사가 보육 현장에는 훨씬 더 많다. 본 고에서는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보육교사의 바람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량 강화를 통해 보육현장에 애착 갖기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이미지, 부모(양육자)의 불신과 의심 등으로 좌절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신념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영유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동시에 보육교사로서 올바른 교직관과 철학을 가지고 맡은 바 소명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영은, 2016), 이러한 보육교사들은 보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들음을 겪게 되지만 보람과 행복의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고영숙 외, 2018).

고영숙 등(2018)의 연구에 의하면, Katz의 유아 보육교사의 발달 단계 과정에 근거해 볼 때, 보육교사로 현장에 배출되기까지 2~4년의 시간과 현장에서 2~3년간의 보육 경험을 갖게 되면서, 생존 단계는 잘 건디어 났지만, 강화 단계와 갱신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보육교사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정서적, 심리적,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해소

보육교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와 감정 노동을 많이 수행해야 하는 직업군이다. 신체적으로 미숙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 부모, 조부모, 동료 교직원 등과 서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영유아의 최상의 성장을 돕기 위한 학습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업무와 관계들은 보육교사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보육교사들은 어떠한 보상보다도 정서적, 심리적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연장보육 전담 보육교사제 도입으로 평일 4시 이후는 휴식과 일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긴 했으나 영유아가 귀가하지 않고 있을 때는 완전한 분리
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교사의 하루 일과 중 휴식을 위한 방
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존중받고 신뢰받는 보육교사 되기

부모(양육자)의 경우, 평소 보육교사에게 친절과 예의를 갖추다가도 ‘아동학대’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보육교사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보육교사와 소통하지 않으려는 모습
을 보인다.

보육교사다운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애를 봐주는 사람이지만 보육
교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린이집이 돌봄 교실이 되는 것 같
아요. 보육교사가 아닌 것 같아요(고영숙 외, 2018).



또한 일부 부모(양육자)들 중에는 위의 사례처럼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으며 아이를
돌봐 주는 도우미처럼 생각하거나, 아이에게 보육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보육교사 스스로가 존중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소통하고 신뢰를 쌓을 것인지
를 찾고 자신을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보육교사의 수준을 고려한 재교육의 실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매년 임용 보고된 모든 보육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
는 필수 교육이다. 교육의 형태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 교육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대해 미온적이기도 하지만 매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듣다 보니 보육교사들은 이수를 위한 형식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되어 버린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식 교육과 소그룹 워크숍을 병행하여 실제 보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뤄 주어야 하며 보육교사의 경력, 전문성 등에 따라 2개 수준 또는 3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어린이집이 중심이 된 아동학대 부모(양육자)교육 실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며 부모(양육자)의 양육 태도 및 실행과 깊이 관련되므로 보육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집 중심의 부모(양육자)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중심의 부모(양육자)교육은 첫째, 강의식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소그룹 형태로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양육자) 간의 부모(양육자) 역할 훈련 형태로 실시될 때 효과가 높다. 둘째, 부모(양육자)가 직접 어린이집 보육 상황에 참여하여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부모 오리엔테이션 시 아동학대의 기준, 부모(양육자)의 역할에 대해 원장 주체로 또는 각 반 보육교사 주체로 교육할 수 있다.



그림 3-2 ● 보육교직원과 부모가 함께 행복해 하는 모습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방향 수정하기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보육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직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고 현장을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고 보육의 직무를 즐길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방향을 제안해 보면, 첫째,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요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 둘째,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요인 분석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 요인은 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요인

영유아 발달에 적절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전문성과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보육교사의 채용과 적절치 않은 내부 교육, 보육교사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 등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어린이집 특성이 된다.



아동학대와 연관된 어린이집의 특성

-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환경
- 영유아 부적응 행동 지도를 위한 해결 방안, 교육 방법이 충족되지 못한 보육교사 교육
- 훌륭한 인격과 적절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보육교사 채용
- 보육교사에게 열악한 환경

출처 :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2016).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몇 가지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너무 좁아 신체 움직임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 영아의 놀이 유형, 특성을 무시한 통일된 흥미 영역 강요
- 영유아 놀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놀이 자료의 부재
- 놀이 자료의 이동을 제한하는 환경
- 또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통제적 방법으로 갈등을 종결짓게끔 하는 어린이집의 방침 및 교육

위와 같은 어린이집의 요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을 구성, 관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요인

보육교사의 성장 배경, 전문성 및 인성, 정서 및 사회적 문제 등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특성이 된다.



아동학대와 연관된 보육교사의 특성

- 어릴 적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
- 아동 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보육교사
- 영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보육교사
- 충동, 우울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 보육교사
- 너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보육교사
- 영유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보육교사

출처 :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2016).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보육교사의 특성을 상호 작용의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식사 시 “이거 다 먹어야 놀이할 수 있어. 좀 먹어”, “안 먹으면 너 키 안 크다.”
- 식사 시 싫어하는 음식 억지로 먹이며 “너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순 없어. 이거 다 먹어.”
- 또래 갈등 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희 싸울 거면 이거 선생님 가져가야겠다.”
- “친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혼자 놀이하세요.”
- “애들아, ○○가 저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 “선생님이 보기엔 ○○가 잘못했어. 어서 사과해.”
- “쌓기 영역에서는 5명까지만 놀이로 했지? 지금 5명이야. ○○는 다른 영역으로 가렴.”
- “각 영역을 소개해 줄게. 각 영역의 놀이 자료는 그 영역에서만 놀이하는 거야.”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짧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유아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 비난하기, 기죽이기, 빗대어 위협하기, 참여권 배제하기 등이 빈번한 보육실 환경은 영유아의 인권이 보장되는 보육실이라 할 수 없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손순복 · 정진화 · 박진옥, 2018b).



- 영유아 개인의 발달의 적합성과 특성에 대한 지식을 실제 보육 상황과 연계하고 그에 대해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갖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일촉즉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의 미숙함과 상황을 읽어 내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 보육교사의 과중한 직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보육교사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 보육보다는 관리의 효율성을 우선하게 되고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자신이 힘든 것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방향성 제고

지금까지의 정보 전달식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보육교사의 직무 소진을 줄이고 가정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방법 찾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처하자. 보육교사 개인의 스트레스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육교사가 스스로 찾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보육교사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이나 압박감을 말함[사전적 의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는 보육교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보육교사 자신의 신체 증상이나 감정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 시 원장, 동료 보육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림 3-3 영유아와 함께 행복해 하는 보육교사의 모습

보육교사-보육교사, 보육교사-원장 간 협력적 관계 형성

보육교사가 온전히 영유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찾아 본다면 매우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일을 혼자 짊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업무량과 근무 시간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보조교사, 휴게 시간, 4시 이후 보육을 담당하는 연장보육 전담 보육교사 투입 등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인력 간의 협력과 학습 공동체의 역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 보육의 질 향상과 개인의 업무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힘든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보육 현장보다는 ‘함께 공유하는 동행자’여야 한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에서도 학습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영유아 사고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학급 문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영유아, 보육교사-원장, 보육교사-보육교사, 보육교사-부모가 학습 공동체로서 소통과 협력의 문화,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아주 작은 사안일지라도 온-오프라인, SNS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학습 공동체의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 이로써 보육교사는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 그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원장과 동료 보육교사들의 의견과 조언은 혹시라도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영유아들에 대해 범할 수 있는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영숙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의 협력, 조력하는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스스로 존중받음을 느낄 수 있으며,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자신의 권리 및 책임감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경험은 보육교직원의 직무 만족도 및 보육교사 효능감으로 이어져 보육실 안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적 지식과 실제 보육 상황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최선은 무엇일까? 보육교사 교육이다. 영유아가 가정을 떠나 만나는 첫 사회적 관계 대상이며,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보육교사

이다. 보육교사는 매일 어쩌면 부모보다도 더 긴 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며 영유아의 발달 전반에 중요한 모델이 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보육 현장의 보육교사들 중 다소는 영유아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를 실제 보육 상황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사회성 발달 특성 중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3세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 1세 영아에게도 자기를 왜 통제하지 못하나며—또래의 놀잇감을 빼앗는 1세 영아에게 “친구 것 빼앗아도 돼, 안 돼? 어떻게 하라고 했지?”—지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 부적응 행동 지도 등에 대해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과 다양한 지도 방법으로 보육교사 자신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권리와 이와 관련된 영유아 개인의 발달의 적합성과 특성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신념 제고 및 변화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는 보육교사의 교육적 신념에 따라 매우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보육 과정 운영 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보육교사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민감성(감수성)을 자극하는 보육교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보육교사 교육만으로 각 개인의 내제된 영유아 권리에 대한 민감성(감수성)을 일깨우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 권리에 대한 자가 인식 점검을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 작용, 어린이집의 환경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시각의 변화야말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3-1>은 1세반 20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 및 영아교육에 대한 신념과 영아 교육 과정 운영 실제 간의 관계’ 관찰(촬영 분석) 및 면담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

다(이승연, 2013). 이를 살펴보면 영아 스스로의 선택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영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보육교사라면 영아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며, 놀이 상황에서 영아를 관찰하지 않고 영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보육교사라면 보육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 3-1 ● 영아 및 영아교육에 대한 신념과 영아 교육 과정 운영 실제 간의 관계

영아로부터 나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보육교사들	vs	영아를 변화시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보육교사들
발견의 대상인 영아	영아를 보는 관점(신념)	어리고 부족한 존재인 영아
각 영아의 특성, 흥미, 발달에 기초한 개별화 교육	영아교육에 대한 신념	단순하고 반복적인 보육교사 주도의 교육
관찰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영아교육 과정 운영의 실제	보육교사 주도로 계획된 활동에 영아가 따라오도록 지도하기
의도를 가진 영아	영아를 보는 관점(신념)	보이는 그대로의 영아
각 영아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영아교육에 대한 신념	외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
영아의 비언어적 행위와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의도(감정과 생각) 이해를 통해 정서적 지원하기	영아교육 과정 운영의 실제	눈에 보이는 외현적인 행동 및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끌기
존중의 대상인 영아	영아를 보는 관점(신념)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영아
즐거운 배움으로서의 영아교육	영아교육에 대한 신념	돌봄에 치중하는 가정과 같은 편안한 보육
영아의 흥미에 기초한 놀이를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세세하게 계획하되,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영아교육 과정 운영의 실제	계획 혹은 기대대로 되지 않아 좌절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교육보다는 보살핌에 치중하기

출처 : 이승연(2013).

어린이집-가정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

영유아의 권리 존중의 실천은 어린이집과 가정, 지역 사회와의 협력으로 실천될 수 있다. 어린이집과 가정은 공동 양육자 관계로서 원장, 보육교사, 부모(양육자) 간의 신뢰 및 배려가 바탕이 된 소통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가진 양육 정보만이 아닌 부모(양육자)의 양육 방법을 공유하여 그에 기초한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어린이집에 빠른 적응과 영유아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가정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시스템 등을 살펴볼 수 있고 보육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양육자)를 참여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 보육교사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양육자)는 원의 운영 방침이나 철학, 보육교사의 노고 등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에 부모(양육자)와 보육교사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소통이 유연해지면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도 대화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 방법이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3-4 보육교직원과 부모가 어깨 동무하고 있는 모습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제 경험하기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동시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의심)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와 가장 직접적이고 가까워서 관계를 갖는 보육교사를 위한 일상적, 정기적, 반복적 교육과 관리는 당연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육교사들이 가장 모호해하는 체벌과 훈육의 차이 인지하기,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수정하기, 영유아 중심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하기, 영유아 부적절 행동 긍정적 지도하기로 나누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 교육의 실제에 대해 경험하고자 한다.

아동 훈육과 체벌의 차이 인지하기

보육교사는 아동 훈육과 체벌의 차이를 인지하고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영유아가 자기 행동 조절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아동 훈육은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의지와 감정을 함양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는 교육 행위이며, 체벌은 영유아에게 고통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아동 훈육은 스스로 행동 조절 능력을 갖추도록 하지만 체벌은 영유아가 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보육교사가 체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 훈육을 적절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훈육과 체벌의 차이

훈육 :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주목적을 달성하는 교육

체벌 : 일정한 교육을 목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
(교육부 · 보건복지부, 2016)

〈영유아의 입장〉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임. 생애 초기 학대 경험은 영유아 발달에 심각한 손상뿐 아니라 학교 폭력, 가정 폭력의 문제로 이어짐

출처 : 손순복 외(2018a).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수정하기

●●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인

영유아가 놀이 및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부적절한 환경을 점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놀이 및 일상생활 공간의 사각지대는 없는가?
- 외부에서 보육실 내 관찰이 가능한 창문, 관찰실 등이 있는가?
- 가구나 시설 설비가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적절한가?
- 파손되었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놀이자료는 없는가?
- 어린이집 내 영유아가 사용하는 공간 등이 비위생적이고 안전에 문제되지는 않는가?
- 영유아의 주도적 놀이를 유도하는 도전적인 놀이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가?
- 놀이 자료는 영유아가 놀이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제공하고 있는가?
- 영유아가 서로 놀이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과 통로가 확보된 공간인가?

●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의 예

어린이집 놀이 영역에 이름을 붙이며 들어가도록 환경을 제시하면서 놀이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고 책상 위, 교실 바닥에 이름을 붙여두고 앉을 자리를 지정하는 등 영유아들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환경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예를 보며 의견을 제시해 보자.

사례 5

책상이나 교실 바닥에 영유아의 사진 또는 이름 붙이고 그 자리에 앉기

- 식사 또는 놀이 시 자리다툼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할 것 같아 이러한 환경이 제시됨
- 이럴 때 영유아의 경험은 어떤 결과가 될까? 매일, 하루 종일 통제된 환경에서 지내게 되지 않을까?

〈참여권(선택의 자유)이 통제된 환경〉



- 의견 : 앉는 자리임을 알리기 위해 표시해야 한다면 같은 모양의 그림이지만 색깔은 다르게 붙여 두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에 앉아 보도록 하되, 선택은 영유아가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사례 6

놀이 영역에 교사가 지정한 숫자만큼만 이름 붙이고 들어가 놀이하기

- 지금 들어가서 놀고 싶는데 다른 유아들이 먼저 놀고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흥미가 사라지고 좌절을 겪게 될 것임
- 영역이 좁아 많은 유아가 들어가면 다툼이 생길 것이고 놀잇감이 부족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용함

〈참여권, 발달권의 침해 환경〉



- 요리 활동, 컴퓨터 활동 등 놀이 중 소집단으로 숫자를 제한해야 할 활동일 때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많은 숫자가 한 영역을 선택했다면 영역의 칸막이를 밀어 환경을 재배치할 수 있음
- 유아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거나 교사와 유아가 함께 찾아보는 등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사례 7

자료를 제시하자 한꺼번에 여러 영아가 몰려들어 다툼이 발생

- 왜 이렇게 몰려들었지? 많은 영아들이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지각
- 또래 간 다툼으로 안전 문제가 염려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며 흥미가 좌절될 수 있을 것임

〈보호권, 발달권의 침해 환경〉



- 책상을 분리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여 자료 제시
- 교사가 넓게 펼쳐 놓아 두고 영아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사례 8

놀이 공간을 분리한 교구장으로 인해 시야를 가리는 환경

- 놀이 공간이 교사와 영유아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교사는 건너편 영유아를 관찰할 수 없음
- 영유아의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을 통제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보호권, 발달권의 침해 환경〉



- 분리가 필요하다면 영유아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은 교구장으로 분리를 하거나 책상 등을 제시해 주어 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을 것임



사례 9

통로가 없는 놀이실 환경

- 책장과 소파가 붙어 있고 비좁은 공간에 테이블이 놓여 있음
- 1명의 영유아가 앉아서 책을 본다면 다른 영유아는 책을 선택할 수가 없거나 다른 영유아의 놀이를 방해하면서 책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임



〈보호권, 발달권의 침해 환경〉

- 영유아가 반드시 책상에서 책을 보지 않으므로 책상을 치울 수 있음
- 소파가 책장을 가리지 않도록 책장 옆에 나란히 놓거나 책장을 앞으로 끌어내어 공간을 확보

영유아 중심의 긍정적 상호 작용하기

놀이 시간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보육 내용이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영유아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가운데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즉 옳고 그른 것을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 생활 관련 시간 또한 영유아가 자조 능력을 기르고 기본적 생활 습관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놀이 시간과 일상생활 관련 시간이 영유아의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도록 보육교사는 영유아 중심의 긍정적 상호 작용을 사용해야 한다. 영유아 중심의 긍정적 상호 작용

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중심의 긍정적 상호 작용

•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 개별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 나누기
- 영유아가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기
- 영유아의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영유아를 평등하게 대하며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 영유아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영유아가 때때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울음, 화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더라도, 우선 영유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 긍정적인 방법으로 행동 지도하기

- 영유아의 행동을 긍정적 방법(예 : 칭찬과 격려, 이유 설명, 대안 제시 등)으로 지도하기
- 영유아와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하고, 영유아와 함께 이야기하며, 영유아의 자율적 행동을 격려하기
-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모델되기
- 가정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는 부모(양육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기

• 격려하기

- 수용하기 : 행동의 긍정적 측면 또는 감정을 읽어 낸 그대로 말해 주는 것
“○○가 블록을 쌓고 있구나”, “친구가 놀잇감을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 인정하기 : 행동한 그 결과까지 말해 주는 것
“○○가 블록을 열심히 쌓는 걸 보니 멋진 건물이 지어질 거 같은데.”
“○○가 놀잇감을 양보해 줘서 친구가 고마워 하겠다.”
- 믿음 주기 : 영유아를 믿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 주며 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지난번에 꼬끼리 퍼즐 맞추 때 이렇게 생긴 모양 맞춰 보니까 완성되었지? 이것도 그렇게 맞춰 볼까? 넌 잘 해낼 거야.”

출처 : 손순복 · 정진화 · 박진옥(2018b).

• 영유아 중심 놀이 지원하기

- 모델링 보이기 : 병행 놀이를 하며 놀이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
“선생님은 밀가루 점토 가위로 잘라 봐야지.”
- 직접적 제안 : 직접적으로 놀이 안내, 유지 및 확장을 돕는 것
“여기 모래밭에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찾아볼까?”
- 지시적 제안 : 놀이 또는 활동에서 실마리 제공, 조언 또는 암시 등으로 새로운 놀이로 나아가도록 유도 또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느낌의 말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는 유아에게 “○○ 자동차 기름이 떨어진 거 같은데?”
- 개방적 · 확산적 질문 : 영유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
“무엇을 할까?”, “왜 그럴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다른 생각 있니?” 등

출처 : 손순복 외(2018b).

부적절 상황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도하기

보육교사는 하루 일과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유아의 부적절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학습의 기회로 삼아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보육교사의 요구와 영유아의 욕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I-massage)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은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보육교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하면서 영유아의 욕구도 존중할 수 있다. 부적응 상황 시 영유아-보육교사 간 상호 작용과 또래 간 갈등 중재를 위한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영유아 부적절 행동 시 나-전달법으로 지도하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사는 매일의 일과를 보내면서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공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서부터 기본적인 습관에 이르기까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는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 간식을 기다리는 유아에게 “바르게 앉아 있지 않으면 간식 못 먹어요.”
- “실외 놀이 나갈 거야”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놀고 있는 영아에게 “넌 안 데려갈 거야. 너만 거기 있어!”
- 활동 중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유아에게 “자꾸 그러면 너만 안 시켜 줄 거야.”
- 울고 있는 영아에게 “왜 자꾸 우는데…”

이와 같은 보육교사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은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유아와 보육교사 간의 부적응 상황에서는 누가 문제를 소유했느냐에 따라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거나 나-전달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전달법은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보육교사일 경우, 즉 학급에서 영유아가 또래와 함께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 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 상대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 등을 할 때, 한 가지 상황에 대해 세 가지 즉 행동, 느낌,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다. 나-전달법을 반드시 3단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단계의 보육교사의 ‘느낌’을 상황에 따라 뺄 수도 있다. ‘느낌’을 뺀 행동, 결과를 사용할 때에는 행동 ‘~하면’으로 말하고 그 결과를 말해 준다. 이와 같이 영유아의 행동으로 인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해 줌으로써 영유아는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 때문임을 알게 되어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다.



나-전달법 연습하기

- 사례1 : 친구가 같이 놀아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고 있는 유아에게 어떻게 상호 작용할까?
→ 좌절을 겪는 사람이 유아이므로 그대로 감정을 수용해 준다. “친구가 놀아주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구나.”
- 사례2 : 놀이 중 교구장 위에 올라가는 영아를 긍정적으로 지도해 볼까?
→ 올라가면 다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보육교사임(보육교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 나-전달법으로 지도하기

- 안전과 관련될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금지어를 사용하여 “안 돼, 위험해”라고 함. 그런 다음 영아가 놀랐을 수 있으므로 영아를 안심시키고 “교구장 위에 올라가고 싶었구나”라고 수용. 이후, 나-전달법으로 영아의 행동-결과로 말함
- ○○가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행동), 떨어져서 다치게 돼(결과). 미끄럼 타러 갈까?(대안 제시)



●● 또래 간 갈등 중재를 위한 긍정적 상호 작용하기

영유아가 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는 대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이다. 자기가 갖고 싶은 놀잇감을 친구가 갖고 있거나 열심히 쌓은 블록을 친구가 지나가다 무너뜨렸을 때처럼 영유아는 다양한 상황에서 좌절을 겪게 되고, 이때 사회적 전략이나 기술 등의 부족으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은 또래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공격성을 조절하고 적절히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① 갈등 해결 5단 전략 사용하기

영유아가 친구와 갈등 상황일 때 진정시키기,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행동 기준 말해 주기, 브레인스토밍하기, 적용 후 점검하기의 5단계 전략을 사용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3단계까지를 실행하고 대안 행동을 제시하며 유아의 경우는 5단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진정시키기 단계에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을 수용해 주며 진정시킨다.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영유아 모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이를 신중히 다룬다. 이때 보육교사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객관적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겠니? 누가 먼저 말해 줄래?”라고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동 기준 말해 주기 단계에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동과 책임에 대한 행동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영아가 아닌 유아의 경우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놀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유도하여 브레인스토밍해 본다. 보육교사는 추후 적용 과정을 살피며 모니터링하고 선택한 해결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격려하고, 그렇지 않다면 왜 지키지 않는지 다시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다.

진정시키기

- 갈등 시 일시적 분리 : (해결 과정의 한 부분, 처벌 아님) 이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리했음을 말로 알림
- 감정 수용 : 간결한 말로 감정과 상황 읽어 주기(격앙된 상황 시 비언어적 수용, 토닥이기 등)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 각자의 입장을 말할 기회 주기
- 친구의 감정 읽어 주기, 친구의 행동 의도를 읽어 주기

행동 기준 말해 주기 영아는 대안 제시 또는 관심 돌리기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하게 말하기. 필요 시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

브레인스토밍하기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보육교사의 도움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 찾기
- 스스로 해결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사가 직접적인 중재 시도

적용 후 점검하기 영유아는 놀이하며 격려하기

- 적용 과정을 살피며 격려하고 모니터링하며 점검
 - 해결 방법대로 하고 있다면 격려. “○○가 화나도 친구를 때리지 않고 말로 잘하는구나.”
-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다시 브레인스토밍하기

출처 : 손순복 외(2018b).

② 또래 간 갈등 중재의 원칙 실천하기

유아 간 갈등을 중재할 때 보육교사는 유아가 상호 주관적 협상이 되도록 이끌며 유아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해 낸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래 간 갈등 주제의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 간 갈등 중재의 원칙 실천하기

-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인 ‘상호 주관적 협상’을 하도록 보육교사가 중재하기
- 부탁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그럼 ‘네가 다 쓴 다음에 나 좀 쓸게’라고 부탁해 볼까?”
- 무조건 양보하라고 하지 않기
“네가 빌려 주고 싶지 않으면 ‘빌려 주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기
- 문제 해결을 할 때 유아들이 찾은 해결 방법을 존중하기
유아들이 찾은 방법이 보육교사의 생각에는 미숙하더라도 크게 벗어나거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면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주기

사례 중심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하기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공감하며 적절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지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실수해 버리는 말을 하게 된다. 가령, “지난번처럼 또 앞지르면 안 돼”, “이거 하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는 키가 작으니까 아기할까” 등 말로 표현되는 것 외에도 보육교사의 말투,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의 미묘한 차이로 영유아에게 비아냥거림, 비난, 빗대어 말하기 등 부정적인 태도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 부족,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즉 보육교사의 인권 감수성(민감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인습과 관습에 의한 교육이 아닌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인 의식 변화가 되어야 하고, 영유아는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인지적 발달이 부족하니까 보육교사의 판단과 결정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불평등한 믿음에서 벗어나므로써 영유아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점을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 불평등 해결을 위한 보육교사의 아동관 변화는 영유아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자, 의사 결정 참여자, 자율적 도덕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 인정할 수 있다(권귀염, 2017).
- 보육교사는 권위 의식의 변화를 통해 영유아가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점’을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리적 권위를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인권 감수성(민감성)을 함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권 감수성(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의 의미와 훈련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인권 감수성(민감성) 훈련하기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서 발생하는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보육교사의 행동이나 언어들, 예를 들면,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인다거나 빈번한 또래 간 갈등 시 감정 수용 없는 갈등 해결 등 유아의 참여를 배제한 보육교사의 결정이 우선되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드러난다. 선택의 권리, 유아의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협의’이다. 문제 상황이 감지되면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유아 간 또는 유아-보육교사 간 협의를 거쳐 해결하는 과정이 상황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을 중심으로 한 교수 전략이다.

본 고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권 감수성(민감성)증진을 위해 각 사례별 훈련 과정의 예를 제시하였다.



사례 10

자유 놀이를 끝내고 바깥 놀이를 나가기 위해 “우리 바깥 놀이 나갈 거니까 문 앞에 모이자”
하나 계속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에게 “지금 모이는 시간에 오지 않으면 바깥 놀이 못 나가요.”

- 상황 지각 : 보육교사가 거짓 위협을 사용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오게 됨. ‘왜 모이지 않는 거지?’와 같이 유아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한 다음(상황을 지각한 것을 문장에 넣어 말해 준다) “지금 하고 있는 놀이를 더 하고 싶은 거구나” 또는 “하던 것을 끝내지 못했구나!”



- 결과 지각 : ‘우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한 시간 이상은 실외 놀이를 해야 하고 점심은 시간 지켜 먹어야 주방이 원활히 돌아갈 것인데…), 그래서 ‘혼자만 두고 나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방임?, 안전사고!)
(지금 유아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를 유아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지금 나가지 않으면 바깥 놀이를 조금밖에 못하고 점심을 늦게 먹게 된단다.”

- 책임 지각 :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려한 다음 영유아와 보육교사가 함께 협의해서 방해되지 않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 협의한 결과가 보육교사의 방향과 다소 다를지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방안을 찾아 개선해 가도록 함 (책임을 지각하기 위한 유아-보육교사 협의 기회 갖기) “어떻게 해야 할까?”
(유아가 어려워하면 허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보육교사가 제안하기) “선생님 생각에는 이대로 두었다가하고 싶을 때 다시 놀이할 수도 있고 점심 먹은 후 할 수도 있겠는데, ○○는 어떻게 하고 싶어?”로 제시

- 교사가 넓게 펼쳐 놓고 영아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사례 11

끼적이기를 위해 바닥에 종이를 붙여 놓았을 때 끼적이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바닥의 종이를 자꾸만 떼어 내려는 영아가 나타남

• 상황 지각

- '만약 대안 활동이 없이 끼적이기 종이를 떼어 내지 못하도록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떼 쓰기?'
- '그대로 떼어 내도록 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영아들은 거기에 열심히 끼적이기를 하겠지.'



• 결과 지각

- '이는 소근육의 연습으로 매우 좋은 활동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활동을 위해 붙여 둔 종이를 떼어 내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떡하지?'
- '바닥에 끼적이기 종이를 붙인 것과 같은 테이프로 다른 종이들을 붙여 두어 떼는 데 관심이 있는 영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 아니면 시트지를 다양한 모양으로 펀칭하여 바닥에 붙여 두고 떼어 내도록 할까?'

• 책임 지각

- 보육교사는 끼적이기 종이를 떼어 내지 않도록 제한한 후 영아의 또다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로운 대안 활동을 제공

인권 감수성(민감성) 증진을 위한 보육교사의 실천 내용

보육교사가 일상 활동 또는 놀이 시간에서 인권적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영유아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좋은 상호 작용을 하는 보육교사는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여 그들의 ‘사고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권귀염, 2017).

다음은 보육교사가 일상생활 및 놀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민감성) 증진을 위해 실천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등원에서 귀가까지 일상 활동에서의 인권 감수성(민감성) 증진을 위한 실천 내용

- 등원 시 영유아와 눈을 맞추고 즐겁게 대화하며 맞이하기(기본 상태, 특이 사항, 준비물 등)
- 등원 시 울거나 부모(양육자)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영유아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보육교사 주도로 훈육하지 않고 감정을 수용해 주며 적절히 관심을 유도하기
- 영유아의 가방을 열거나 사물함을 확인할 때 영유아의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 하루 일과 중 손 씻기, 양치질, 화장실 다녀오기와 낮잠, 점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시간을 운영할 때 모두가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 않고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정리 시간에는 미리 시간을 알려 주어 영유아가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 영유아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은 강요하지 않으며 영유아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하기
- 정해진 낮잠 시간에 맞추어 과도하게 재우거나 깨우지 않고 조용히 책을 보거나 놀이가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좀 더 잘 수 있도록 배려하기
- 귀가 시 영유아가 일과 중 성취한 것, 속상한 것 등을 개별적으로 이야기 나누며 다음날 핵심 내용을 간단히 안내하기
- 귀가 시 먼저 귀가하는 영유아의 부모(양육자)를 놀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남아 있는 영유아의 부모(양육자) 기다림에 대한 불안감을 예방하기



놀이 및 활동 시 인권 감수성(민감성) 증진을 위한 실천 내용

- 자유 놀이 시간에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또래 간의 충분한 대화와 적극적인 놀이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놀이 영역에 이름을 붙여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영유아가 놀이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들어가서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 영유아가 앉을 자리에 이름 붙여서 자리를 정해 주지 않고 자유롭게 앉고 싶은 자리에 앉도록 하기
- 영유아의 어떠한 이야기(엉뚱한 소리)도 진지하게 듣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 영유아의 이야기도 듣고 반응하기
- 매일 하루 일과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영유아에게 개별 또는 집단으로 안내하기
- 놀이에 들어갈 때 '이거 뭐야', '뭐하니' 등 영유아의 놀이 집중을 방해하지 않으며 반드시 먼저 관찰을 하고 영유아의 몸짓이나 표정 등의 표현을 주의 깊게 살핀 후 반응하기
- 특별한 활동(현장 학습, 운동회, 발표회 등)에서도 영유아의 의사를 반영하고 활동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영유아 놀이 시 놀잇감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스스로 찾아보고 선택해 보도록 하기
-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표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충분히 생각해 보고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 대소 집단 활동에서도 보육교사는 활동의 구성과 진행에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기
- 영유아 자신의 생각, 요구, 도움 요청, 놀이 자료 나누기 등에 대해 직접 말해 보도록 하기
- 영유아들과 협의하여 교실의 규칙을 정하며, 영유아의 실수와 개별적인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이야기하지 않기

CHAPTER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의 어린이집 관리





CHAPTER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의 어린이집 관리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최종 의사 결정자이며 보육교직원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도 원장이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 업무 중 하나이다.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함께 아동학대와 훈육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정하기,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 알리기, 도덕적 리더십의 발현을 통한 보육교직원의 자율적 도덕성 향상,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조절과 직무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성 관리 및 교육, 모니터링과 코칭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와 아동 훈육의 기준 제시하기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근거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 행위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넓어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의 전문성, 윤리, 성장 배경, 기질적 특성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 가능성이 많다. 이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직원의 판단과 행위가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한 기준에 미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행위의 이유를 물어보면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함께 아동학대와 훈육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서 보육교직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게 학대 행위란 극심한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행동’까지 모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직원과 아동학대와 아동 훈육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장’ 만들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보육교직원은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 상황에서 매번 어떻게 영유아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동학대이고 훈육인지에 대해 전문적,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 중 아동학대 인지 아동 훈육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상황에 직면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에게 그 행동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훈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그 보육교직원의 행동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행동을 개선시키려고 영유아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빨리 편안하게 영유아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이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또한 이들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유아들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보육교직원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유아에게 일정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육교직원은

-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아동 훈육으로 인식
-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영유아가 일부러 보육교직원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처벌을 당연시 여김

그러므로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적 역량을 신장시키고 추상적인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 훈육과 구분지어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해 보는 과정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이 일방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도하는 것이 아닌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함께 아동학대와 훈육의 개념을 비교하고 논의하여 정의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 원장은

- 아동학대와 아동 훈육의 개념을 비교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토론의 장 만들기

아동학대와 아동 훈육의 개념 확립하기

신체 학대에 초점을 맞추었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점차 정서 학대의 문제로 그 중심이 바뀌고 있다. 이는 신체의 상처만큼 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유아 가해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았던 관점에서 점차 영유아에게 부적절한 상호 작용은 모두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즉, 영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보육교직원의 언어, 행동은 모두 아동학대로 판단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아동학대 패러다임의 변화 ‘아동학대란?’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 →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상호 작용

한편, 영유아의 공격적 행동, 때 부리기, 거짓말 등의 행동도 문제 행동이라고 보던 시각에서 영유아의 자기 욕구 해소에 충실하고 자기중심적인 특성에 비추어 발달상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 행동’으로 보고 영유아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부적응 행동 지도’, ‘생활 지도’의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장-보육교직원의 논의에서 위와 같은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훈육은 영유아가 특정한 원인과 동기에 의해 선택한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적응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보육교직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보복 행위, 소리 지름 등으로 영유아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놀이 자료를 얻기 위해 또래를 때리는 공격적 행동을 선택한 만 1세 영아에게 “친구를 아프게 하는 행동은 안 돼”라는 것을 알리고 동일한 놀이 자료를 제안하는 것을 통해 영아의 놀이 자료 획득을 위한 공격적 행동을 차단하는 것은 훈육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친구가 얼마나 아팠는지 너도 한번 맞아 봐”라며 영아를 때리는 보육교사의 행동은 영아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영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보복 행위를 교수하는 아동학대라 할 수 있다.



그림 4-1 영아실에서 놀이하고 있는 영유아의 모습

또한 훈육은 영유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가 보육교직원에게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수동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육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동학대는 처벌, 위협, 강압 등 부적절한 행위로 영유아를 훈육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급식을 잘 먹지 않는 영유아를 위협하여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음식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다던지, 또래를 문 영유아를 강압적으로 컴컴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혼자 있도록 한 후 자신의 행동을 생각해 보라는 행위는 아동학대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점심 먹은 후 이 닦기를 하려고 순서대로 줄을 설 때, 순서를 무시하고 앞으로 가서 줄을 서는 유아에게 “이를 빨리 닦고 싶었구나. 그런데 먼저 온 친구들이 있네. 먼저 온 친구부터 줄을 서서 차례 차례 이 닦기를 하기로 했지. ○○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앞으로 가면 먼저 줄을 서고 있던 친구들의 기분은 어떨까?”라며 유아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훈육이다.

반대로 “너 지금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앞으로 왔지? 넌 오늘 우리반에서 가장 나중에 이 닦도록 할 거야”라며 처벌을 하는 경우는 유아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이다.

순서대로 이를 닦기 위해 줄을 서는 행동을 보육교직원의 통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줄을 서지 않는 것은 다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훈육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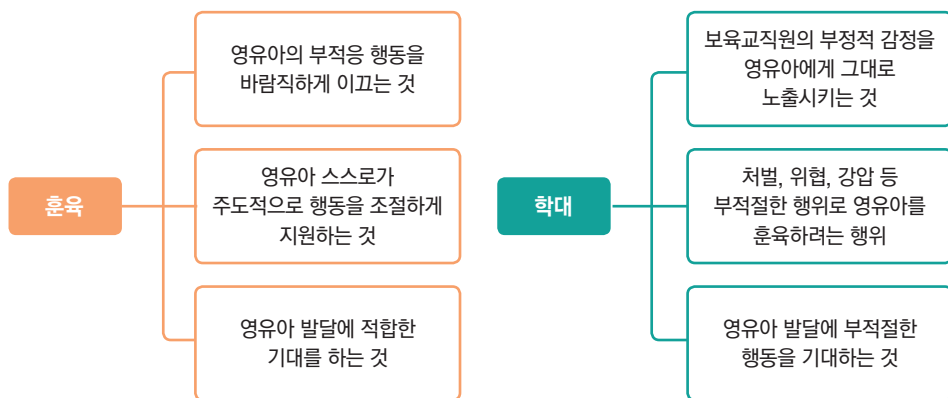
그림 4-2 ♀ 이 닦기 하는 영유아

마지막으로 훈육은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의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어린 연령일수록 놀이 자료의 공유, 또래와의 협의, 배려 등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개입한다. 반대로 아동학대는 영유아 발달상 부적절한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사회적 기술을 점차 배워 나가는 연령이어서 또래 간 갈등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그런데 보육교직원이 하루 일과 중 영유아의 또래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지 않는 부적절한 기대이다.

◀◀ 예를 들어, 만 1~2세는 놀잇감을 또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놀잇감과 관련된 공격적 행동이 발달 특성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색, 모양이 똑같은 동일 놀잇감을 여러 개 준비하는 것이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한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행동에 대해 적절한 기대 수준이다. 반대로 만 1~2세 영아가 놀잇감 다툼을 보일 때 “우리반 놀잇감이니까 같이 놀자. 왜 같이 가지고 놀이 못하니?”라며 놀잇감 공유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림 4-3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보육교직원의 모습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목록 제시하기

원장-보육교직원이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개념을 공유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목록을 작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완정 (2018)이 제시한 목록을 근거로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목록을 작성해 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목록

구분	내용	예
영유아에게	신체나 도구로 위협, 때리는 행동	신학기 초 어린이집이 낯설어서 울음을 보이는 영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뚝, 뚝, 그쳐!”라고 하는 행위
	영유아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보육교사 책상의 컴퓨터를 만지려는 영유아에게 “만지지 마”라며 각티슈를 던지는 행위
	강압적으로 끌어당기거나 앉히는 행위	바깥 놀이를 나가기 위해 겹옷을 입히려고 영유아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데 돌아다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해당 영유아의 한 팔을 끌어당겨 다른 영유아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 어깨를 눌러 앉히는 행위

구분	내용	예
영유아 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행동	영유아 간 또래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오늘 너희들 몇 번째야? 또 싸우니?”라며 크게 소리 지르는 행위
	스킨십을 꺼리는 행동	영유아가 보육교사를 안거나 뽀뽀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려는데 화장이 지워진다고나 옷에 이물질이 묻는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 나거나 꺼려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
영유아 훈육 시	화장실 등 보육실이 아닌 곳에 방치	급식을 잘 먹지 않는 영유아에게 “왜 자꾸 안 먹는 거야. 너 생각 좀 해야겠다”라며 불 꺼진 화장실에 데려가서 문을 닫고 나오는 행위
	어깨 등을 강하게 잡기, 흔들기	교구장에 자꾸 기어올라가는 영유아에게 “또 올라갔어?”라며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행위
	보복성 행동	또래를 문 영아에게 “너도 한번 물려 봐야지 알지?”라며 무는 행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훈육	바깥 놀이를 나가려고 줄을 서자 또래를 앞, 뒤로 미는 유아에게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하자”라며 유아를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는 행위
영유아 기본 생활 지원 시	기저귀 늦게 갈기, 젖은 옷 늦게 갈아입히기	대소변을 많이 봐서 기저귀가 축 처져 불편해 하는 영아에게 “지금은 기저귀 가는 시간이 아니야. 밥 먹고 나서 친구들 모두 기저귀 갈거야”라며 기저귀 갈이를 지연시키는 행위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상황에 그대로 노출시키기	바닥에 떨어진 급식을 주워 먹는 영유아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영유아의 언어, 비언어적 요구 무시	영유아가 자신이 블록으로 구성한 것을 가리키며 “선생님, 이거 봐요. 내가 만들었어요”라고 이야기하나 반응하지 않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 다 먹도록 강요하기	시금치를 먹기 싫어하는 영유아에게 “음식은 골고루 다 먹어야 해, 빨리 먹어. 다 먹은 사람만 놀이할 수 있어”라고 하는 행위
	낮잠을 자기 싫어하는 영유아에게 억지로 자도록 강요하기	등원을 늦게 해서 낮잠을 자고 싶어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눈 감아.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몸 움직이지마”라며 영유아의 몸을 손으로 누르는 행위
영유아 놀이 지원 시	영유아의 놀이 초대 무시	영유아가 음식 모형을 차려 놓고 “선생님, 맛있는 저녁을 차렸어요. 오셔서 드세요”라고 하는데 무시하는 행위

구분	내용	예
영유아 놀이 지원 시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자료 제공하지 않기	유아가 “선생님, 여기 창문을 만들고 싶은데 박스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자 “그냥 있는 걸로 해”라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놀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제한하기	쌓기 영역에서 놀이하고 싶어하는 영유아가 많은데 “여기는 4명만 놀 수 있어. 4명만 남고 다 나와”라고 제한하는 행위
	정해진 공간만 사용 하도록 하기	블록으로 우리 동네를 구성하다 보니 점점 구성물이 많아져 옆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유아들을 보고 “여기는 블록으로 놀 수 없어. 빨리 쌓기 영역으로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행위
	놀이 자료 이동을 제한하기	영아가 자동차를 타고 그림책을 꺼내자 “책 보려면 자동차 가져다 놓고 와야 해”라고 하는 행위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 제공하지 않기	한 번에 1시간 이상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20분, 30분 단위로 놀이 시간 쪼개서 제공하는 행위
영유아 권리존중 을 위하여	부정적인 감정 표현 (분노, 짜증 등)을 그대로 노출	영유아가 물을 마시다가 컵에 있는 물을 었지르자 “아, 짜증나. 또 닦아야 하잖아”라고 얼굴을 찌푸리는 행위
	다그치기	또래의 놀잇감을 가져간 영아에게 “왜 또 가져갔어? 너 자꾸 친구 꺼 가져갈 거야?”라고 소리를 높이는 행위
	영유아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않기	영유아의 이름 대신 “야, 애, 너”로 부르는 것
	비교, 조롱, 공개적 창피	밥을 느리게 먹는 영유아에게 “오늘도 또 늦게 먹는구나. 거북이가 친구하자 하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행위

원장은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영유아의 권리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나아가 아동학대 행위임을 보육교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림 4-4 영유아를 관찰하는 보육교직원의 모습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들이 영유아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인권을 무시한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의심을 갖게 하여 사회 관계 기술의 획득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아동학대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대는 영유아에게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즉, 정서적 학대를 받은 영유아는 자신을 ‘쓸모없는 아이’, ‘잘하는 것이 없는 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중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둘째,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를 받은 영유아는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미리 유추하는 경향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위축되는 등 사회적 유능감이 저하되는 것과 연결된다.

셋째, 아동학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위축, 다른 사

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불러 일으켜 영유아의 불안, 우울 등 정신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Burns et al.(2010)은 영유아기의 학대 경험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영유아기 학대 경험이 정서 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성인기까지도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경험은 영유아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학대 받은 영유아는 정서 통제 기술이 발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다른 사람과 협의해야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공격적 행동으로 발산한다.

여섯째,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기의 학대 경험으로 낮은 자아 존중감, 불안, 우울 등의 문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기에 신체 학대를 경험한 영유아는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학대를 대물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영유아 시기의 학대자를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서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 지원에 있어서 자신을 양육한 학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경향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는 해당되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후 그 자녀의 삶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 아동학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지시켜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행동을 한번 더 살피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영향

- 낮은 자아 존중감 형성
- 사회적 유능감 발달 저해
-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 발생
- 정서 통제 기술 미비
- 공격적 행동 증가
-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
- 학대의 대물림 문제

원장의 긍정적 영향력 발휘하기

원장은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시키고 사회적 지지망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육교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적 리더십의 발현

도덕적 리더십은 윤리적,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보육교직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장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영유아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 도덕적 리더십의 개념

도덕적 리더십은 도덕과 리더십이 결합된 단어이다. 먼저 도덕의 개념을 살펴보면 도

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보편적인 윤리로 보육교직원의 자율적 판단을 촉진하는 기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리더십이란 원장이 보육교직원의 행동과 상호 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정희정·김정희, 2016)이며, 원장이 보육교직원에게 요구하는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한 도덕적 리더십이란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지도·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적 품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보육교직원의 존경과 신뢰를 획득하고 보육교직원의 자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 스스로 각각 어린이집의 ‘작은 원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은 원장의 리더십 관련 능력과 인성과 관련된 것으로써 보육교직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윤리에 입각한 바람직한 행동을 함으로써 보육교직원 간 또는 보육교직원-영유아 간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Brown, Treviño, & Harrison, 2005)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들 스스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

- 도덕적 품성, 능력+보육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 원장 스스로 바람직한 윤리적 모델→보육교직원의 존경과 신뢰 획득→보육교직원 스스로 윤리적 행동,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냄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은 보육교직원에게 권한 부여, 비전 제시, 사명감 부여, 공정성, 책임감, 청렴성이며 권한 부여와 비전 제시는 리더십과 관련된 요인이고 사명감, 공정성, 책임감, 청렴성은 품성 요인이다.

원장이 보육교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원장이 보육교직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일정 업무에 대한 보육권직원의 전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육교직원의 부모 상담 관련 전문성과 인간관계 기술 등을 인정하여 보육교직원이 부모에게 전달하는 일일 전달장, 비정기적 상담, 정기적 상담은 원장에게 검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원장이 모든 어린이집 업무를 자세히 검토하기는 불가능하다. 보육교직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도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되고 보육교직원에게 업무의 주도성도 강화하는 것이 된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자신의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한다. 비전은 사전적 의미로는 장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업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육 업무를 배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 경력이 이후 보육교직원의 미래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원장은 어린이집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보육교직원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또,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보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보육 업무가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육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이후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불러 일으켜 윤리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정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공정성은 업무 처리의 합리적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포함한다. 즉, 도덕적 리더십을 갖춘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집 내의 의사 결정 시 합리적인 절차를 따른다. 결정할 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보육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사 결정을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업무 평가도 공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보육교직원이 자기 평가를 통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 보육교직원 평가 등이 바탕이 되어 원장 평가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평가 기준에 따라 원장의 사적 감정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감도 필요하다. 원장 자신이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부모, 영유아와 함께한 약속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직원-부모 간의 문제, 보육교직원-보육교직원 간의 문제 등에서 각각의 보육교직원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렴성은 필수 조건이다.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원장은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보이며 부모, 보육교직원에게 땃가성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혹시 금품을 건네더라도 이를 사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모습을 본 보육교직원은 자신도 원장과 동일하게 절약, 검소한 생활 태도와 부모 등에게 땃가성 금품을 사절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 권한 부여
- 비전 제시
- 사명감 부여
- 공정성
- 책임감
- 청렴성



그림 4-5 원장과 보육교직원 대화하는 모습

● 도덕적 리더십을 갖춘 원장의 특성 및 영향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이다.

도덕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원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영유아, 보육교직원 등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도전하고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특성이 있다(White, 2014). 원장 자신이 보육교직원의 기본 인권을 지켜 주려고 노력하고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도 자신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기본 인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즉각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이끈다. 도덕적 리더십을 갖춘 원장은 각각의 보육교직원 의견을 청취하고 원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보육교직원도 수용하고 존중한다. 어린이집의 여러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청취한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원장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만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문화가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합리적인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장 의견이 다른 보육교직원의 의견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각각 개별 의견으로 존중되기에 민주적 조직 문화가 나타난다.

셋째,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의 정당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용한다.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근무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자신의 전문적 성장·발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원장은 영유아 보육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금, 휴가, 휴게 시간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개인적 비전을 추구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투명하고 명료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원장은 법적, 윤리적 판단에 기초해 어린이집의 인사, 회계, 보육 등을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를 부모(양육자)와 보육교직원에게 공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섯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가치를 공유하도록 한다. 도덕적 리더십

을 갖춘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롤 모델(role model)이 되고 모델링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원장이 바람직한 어린이집의 목적과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육교직원이 따르게 만든다. 또한 원장은 어린이집의 목적과 가치를 보육교직원과 함께 논의하여 수정하기에 보육교직원의 목적과 가치 공유가 더욱 수월하다.

여섯째, 동료와의 협력 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를 조성해 주어 어린이집 내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곱째,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도덕적 자율성에 영향을 준다(조숙영·원혜경, 2015). 도덕적 리더십을 갖춘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원장이나 외부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위나 명령에 의해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확립한 도덕적 원리에 따라 판단을 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은 보육교직원의 도덕적 자율성에 영향을 주어 어린이집 조직 안에서 공동체의 도덕적 규범을 형성하고 보육실 내에서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와 상호 작용할 때 보다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직원 스스로 보육 과정 수행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문화를 형성한다.



도덕적 리더십을 갖춘 원장의 특성

-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주의 환기
-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
-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목표와 이익 추구 수용
-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의 목적과 가치 공유
- 보육교직원 간 협력 문화 조성
- 보육교직원의 도덕적 자율성에 긍정적 영향 미침

종합적으로 보면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은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인지 수준을 증가시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주의 환기 능력을 상승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을 도와 아동 학대를 예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그림 4-6 영유아와 인사하는 원장의 모습



사회적 지지망으로서의 원장 역할 수행

보육교직원의 직무 소진은 결국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직무 소진을 막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지지망이 되어야 한다.

● 사회적 지지망의 개념

사람들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나가며 관계를 맺는데, 이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충족되는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도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부모, 동료 보육교직원, 원장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는 항상 보육교사 자신이 배려하면서 형성해야 하고 동료 보육교직원과는 협력,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하나 원장은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관계 형성자가 된다.

사회적 지지는 크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이며(이지연·위광휘, 2000), 애정과 보호, 존중, 소속감을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관계의 유용성이라 할 수 있다(Thompson, 1995).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결국 보육교직원이 원장과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도움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원장이 보육교직원에게 어떤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사회적 지지의 질적 수준이 어떠한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어린이집의 최종 결정권자인 원장은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원장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망은 보육교직원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고 직무 소진과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지지망

보육교직원이 원장과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도움

● 사회적 지지망의 종류

원장이 보육교직원에게 제공할 사회적 지지망은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망이 있다.

① 정서적 지지망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자신이 존중 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도록 지지해 줄 수 있다. 즉,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신뢰를 나타내고 관심과 애정을 줌으로써 정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부딪치는 일련의 사건과 문제에 정서적 공감을 표현해 주거나 정서적 표출을 도와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정서적 지지망의 예

하원 시간에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자신의 아이가 특정 영유아 때문에 어린이집에 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지를 묻는다. 보육교사는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부모의 자녀와 특정 영유아가 큰 갈등 없이 지내서 내일 두 아이를 재관찰하고 필요하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 보겠다고 답변한다. 부모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데 관찰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를 되묻고 또래 관계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거 아니냐며 보육교사를 질책한다.

부모가 귀가 후 보육교사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힘들어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부모에게 답변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었다고 격려하고 부모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 먼저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한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힘듦을 함께 나누고 공감을 언어로 표현해 준다.

② 물질적 지지망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적절한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준한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며 보육 진행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사무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물질적 지지망의 예

연장반이 운영되는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휴게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보육교사가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7  교사실에서 쉬는 보육교사의 모습

③ 평가적 지지망

원장은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어 보육교직원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평가적 지지망의 예

보육교직원의 업무 평가를 위하여 원장 단독에 의한 평가 체계가 아닌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원장 평가의 체계를 갖춘다. 자기 평가는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적 평가를 해보는 기회로 삼고, 동료 평가는 보다 다른 사람에 의한 객관화된 평가를 분석하는 발판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원장 평가는 어린이집 관리자로서 보육교직원을 바라보는 평가로 활용될 수 있다.

④ 정보적 지지망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 제공, 조언 등을 통해 지지할 수 있다.

정보적 지지망의 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 보건복지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육아 정책 연구소 등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판례에 대한 내용을 보육교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전문성을 높인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 제공, 조언 등을 통해 지지할 수 있다.



그림 4-8 🌸 책을 보고 있는 보육교사의 모습

● 사회적 지지망의 영향

원장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실행된다면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자신의 안전망(secure base)으로 여기게 되어 원장을 근거로 영유아, 부모, 동료 보육교직원에게 바람직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또한 보육교직원은 원장이라는 안전망을 근거로 원장을 신뢰하듯 타인, 즉 영유아와 그 부모, 동료 보육교직원도 신뢰를 하게 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원장의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에게 좌절을 견디게 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게 된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부모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고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학대 관련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 파악 및 대처하기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첫째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에서 반응적이지 않으며 온정적이지 않은 반응이 가장 많이 파악되었다. 영유아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울음을 보이는 영유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파악하기보다는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기저귀 갈이를 하고 난 영아가 바지를 입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자 바지를 입히지 않고 장시간 놓아두는 모습을 보였다.



원장의 대처 방법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 면접, 인 · 적성 검사 등 다양한 채용 과정을 통해 최대한 타인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인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채용 이후 그렇지 못한 상호 작용이 관찰되는 보육교직원은 민감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작용 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급 · 간식 시간에 부정적인 상호 작용이었다. 모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도록 한다든지, 영유아가 먹다가 힘들어 토한 것을 다시 먹도록 강요하거나 토한 것을 영유아 연령에 상관없이 치우도록 하는 것, 점심을 늦게 먹는 영유아를 어두운 장소로 이동시켜 밥을 먹도록 하는 것, 점심시간에 식습관 지도를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억압적인 상호 작용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영유아에게 급 · 간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을 적게 주는 것 등이 관찰되었다.



원장의 대처 방법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들은 맛을 느끼는 입안의 미뢰가 성인보다 훨씬 많아 맛에 더 민감하고 개별적으로 먹는 양, 속도가 다르므로 이를 수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하며 아동학대 사례가 급 · 간식 시간에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급 · 간식 시간에 대한 보육교직원 모니터링을 세심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체벌을 훈육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영유아는 보육교사가 제안한 것,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훈육할 때는 강압, 밀치기, 누르기, 흔들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장의 대처 방법

원장은 훈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훈육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대집단 운영 시 보육교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때림, 밀침, 다른 반 보육교사에게 보내기 등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원장의 대처 방법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영아반은 대집단 활동이 불가능하며 유아의 경우에도 유아의 놀이를 강화, 촉진하는 데 대집단 활동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대집단 운영 시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가 많다면 활동의 흥미, 발달에 적합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활동으로 수정해야 함도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일상생활 지도 시에 방임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이 노출되었다. 대변을 본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다든지,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뺏는 다든지, 이를 세게 닦고 세면 시 영유아의 얼굴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강도를 높여 닦아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원장의 대처 방법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를 주지시키고 그 시간을 일대일 상호 작용의 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여섯째, 보복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또래 간 갈등 시 또래를 때린 영유아를 똑같이 때리고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화를 내며 때리거나 밀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원장의 대처 방법

보복 행동은 영유아에게 그대로 모방되어 공격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보육교직원에게 알리고 감정 조절을 위한 방법, 예를 들어, 잠시 큰 숨을 쉬어 보기, 때린 영유아에게 먼저 접근하지 말고 피해 영유아에게 우선 접근하여 공감해 주기, 숫자 세고 영유아에게 접근하기 등을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치료를 감행하고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영유아를 귀가 조치하며 사고 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원장의 대처 방법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보육교직원들에게 이를 숙지하도록 지도한다.

보육교직원의 반성적 사고 유도하기

영유아와 함께 하는 하루 일과 속에서 보육교직원은 수시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윤리적, 전문적 판단을 하여 영유아와 상호 작용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판단이 매번 옳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판단하거나 나의 편의성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동일한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모, 저널 쓰기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반성적 사고를 한 후 이를 자율적으로 간단한 메모, 저널 등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성적 사고를 할 때는 첫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하였나? 둘째, 나의 판단은 영유아를 위한 것인가?(아니면 나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가?) 셋째,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은 적절하였는가? 넷째, 나의 결정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다섯째, 나의 결정이 영유아에게 행복감을 주었는가? 등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



그림 4-9 반성적 저널을 쓰는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의 모니터링과 코칭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하루 일과 중 영유아 인권 존중을 위한 상호 작용을 지속하고 있는지 보육실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매번 동일한 시간에 실시하기 보다는 자유 놀이 시간, 급·간식 시간, 낮잠 시간 등 다양한 일과 시간대에 방문하여 보육교직원의 상호 작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은 보육교직원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코칭을 목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보육실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하여 잘하고 있는 점은 보육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격려하고 문제가 있는 점은 보육교직원과 원장이 일대일로 만나 보육교직원이 원장의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코칭 시에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모니터링 시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마음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제시하면서 코칭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장이 모니터링을 통해 코칭해야 할 보육교직원의 행동

- 영유아에게 소리지르기
- 영유아의 어깨 등을 잡고 흔드는 행위
- 영유아를 붙잡거나 책 잡아당기기
- 영유아를 치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
- 영유아를 구석에 몰아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교사가 계획한 활동만을 유도하는 행위
- 영유아에게 무관심한 행위
- 영유아를 관찰하지 않는 행위
- 영유아를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서 상호 작용하는 행위

참고문헌

- 고영숙·이대균 (2018). 아동학대에 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121-145.
-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세종 : 보건복지부.
- 권귀염(2017).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아동권리 세우기. 2017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39-54.
- 권연희(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관계에 관한 문헌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은 (2016). 유아보육교사의 인성 자기평가와 아동학대 인식 간의 관계 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7(3), 17-30.
- 김은옥(2018).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권리인식이 아동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은·최진령(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499-515.
- 박진아·이경숙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3), 27-54.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20).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세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서울 : 한국보육진흥원.
-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빈번 발생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매뉴얼. 세종 :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보육교직원용). 서울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성영화 · 이숙자(2018). 영유아 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및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 한국보육학회지, 18(1), 125-146.
- 손순복 · 권경숙 · 방혜경 · 조미영 · 봉진영(2018a). 아동안전관리. 서울 : 학지사.
- 손순복 · 정진화 · 박진옥(2018b). 영유아교수방법(2판). 서울 : 학지사.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9). www.csia.or.kr에서 2019년 9월 20일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2021). <http://korea1391.go.kr/new/page/concept.php>에서 2021년 7월 23일 인출.
- 안정현(2020).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혜영(2013).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매자(2010).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 정계숙(2012). 부모의 아동 권리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생애학회지, 2(2), 33-50.
- 이승연(2013). 영아보육교사의 영아 및 영아교육에 대한 자기관찰 및 해석을 통한 영아교육의 실제와 그 의미분석. 대전 : 한국연구재단(NRF).
- 이지연 · 위광휘(2000).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발달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5-28.
- 이완정(2018).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당행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회자료집, 아동권리학회.
- 이혜진 · 장혜진(2017). 부모의 사회문화적 변인에 따른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천. 열린부모교육연구, 9(4), 1-20.
- 정희정 · 김정희 (2016). 유아교육기관 원장 리더십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193-218.
- 조숙영 · 원혜경 (2015). 보육교사가 지각한 어린이집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과 교사몰입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도덕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1(6), 191-219.

- Burns EK, Jackson JK, Harding HL(2010)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the impact of emotional abuse. *J Aggre Maltreat Trauma* 19(8), 801–819.
- Brown, M. E., Treviño, L. K., & Harrison, D. A. (2005). Ethical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for construct development and tes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7(2), 117–134.
- Carter, D. and Welch, D. (1981).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behavior. *Family Relations*, 30, 191–195.
- Thompson, R., A.(1995).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through social support : A critical analysis. Thousand Oaks CA : sage.
- Rogers, W. S. (2009). 9 Promoting better childhoods. *An introduction to childhood studies*, 141–160.
- White, J. (2014). A model of moral courage: A study of leadership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Myanmar. Retrieved November 22, 2019, from <https://doi.org/10.1080/17448689.2014.949080>.

저자

손순복 동서울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조해연 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서원경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림 제공

중앙동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

성남숲어린이집

발행처 성남시(아동보육과)

발행일 2021년 10월

발간등록번호 71-3780000-000176-01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폭력을,
훈육의 입으로
분노를,
멈추세요!



아이저함글112